

내란 사태 속 빛난 광주정신인데...여전한 5·18 비하

'12·3 비상계엄' 이후 SNS 등 80년 광주 잇따른 재조명에도 '5·18은 폭동' 등 왜곡·편향 난립...5월정신 헌법 수록 급선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전라도와 광주 시민을 비하하는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1980년 광주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교하며 광주와 5·18의 아픔에 공감하고 감사를 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 5·18을 폄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욕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도 당당히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 이유에서 광주 5·18을 언급하며 '광주에 빚졌다'고 표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등 정치계는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5·18 혐오'를 하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온라인에는 "광주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도 다시 한번 감사할", "계엄을 겪어보니 광주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광주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등의 글들이 연일 올라왔다. 광주 희생의 역사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12·3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광주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글들도 온라인에서 난무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비상계엄 선포일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 이후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극우 성향의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을 분석한 결과 디시인사이드에서 123개, 일간베스트에서 23개의 5·18 왜곡·편향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디시인사이드에는 '전라도 망했노', '제2의 5·18 드가자', '오늘부로 흥어(전라도 지역민 비하 표현) XXXX들은 다 뒤진다', '이 X만한 흥어 XX들 5·18 폭동을 폭동이

라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부터 개X같았는데 한번 다 뒤질 때도 됐다'는 등 지역을 비하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좌든 우든 지금 거리 나가면 나도 이제 5·18처럼 유공자 혜택 받는거지?', '5·18처럼 농성하고 무기 고철고 어찌꾸저꾸하면 유공자 될듯', '5·18도 계엄군과 맞서서 유공자 됐으니 계엄군과 대치했던 모든 분들 유공자 검토할 듯. 유공자 선별은 광주시청에서 한다고함' 등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글도 줄줄이 올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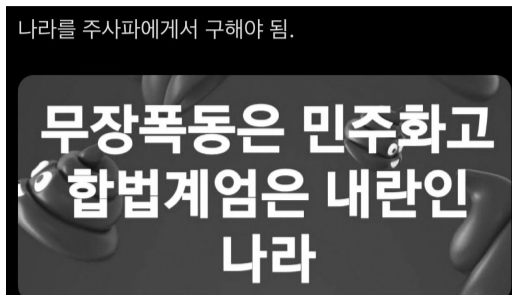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5일에도 '5·18은 폭동이 맞는 이유'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폭동이 아니고서는 계엄군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 '광주는 무슨 짓을 했길래 군이 총을 쏘게 만드느냐는 조롱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5·18기념재단은 5·18 왜곡·편향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삭제 요청했다. 대부분의 글은 작성 직후 얼마 안 돼 삭제됐으나, 19일 현재까지도 5·18을 왜곡, 폄훼하는 게시물들이 다수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생의 커뮤니티 앱 '전남대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15일 금남로 탄핵 촉구 집회를 두고 "폭도들이 이때다 싶어 신병을 발휘한다", "역시 본능이 잠재돼있다"는 취지의 글과 댓글이 올라왔다.

또 "계엄령은 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5·18 정신 부기럽다. 전라도 빼곤 인식이 안 좋더라", "광주 5·18 정신 중요한데 왜 명단 공개는 죽어도 안 하느냐", "5·18은 복고 선동에 정도당해서 시작된 것일 확률이 높다"는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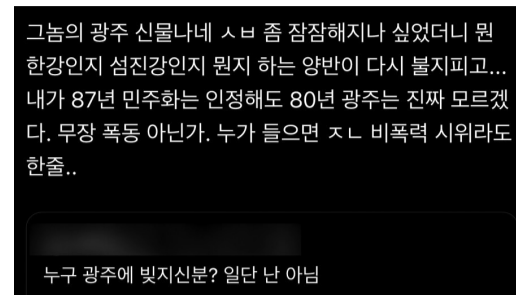
'X' (옛 트위터)에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누구 광주에 빚 지신 분? 일단 난 아니니 너네끼리 많이 지고 갈아라'고 비아냥대거나 '그놈의 광주 정신 물난다. 1987년 민주화는 인정해도 1980년 광주는 무장 폭동 아닌가? 누가 들으면 비폭력 시위라도 한



19일 SNS 'X' (옛 트위터)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 삼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

줄 앓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X 이용자는 '5·18 무장 폭동은 민주화운동이고 대통령의 헌법에 의한 평화적 계엄은 내란이다', '5·18 때 살인귀가 유공자가 됐다. 진짜와 가짜는 가려내야 한다', '광주가 대한민국에 빛을



19일 SNS 'X' (옛 트위터)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 삼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

줄 것이다', '(전)라도는 나라 망치는 기생충 집단' 등 5·18과 광주를 비하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5·18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5·18 왜곡·편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하면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序文)으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이 국가와 국민의 정신에 미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원순석 5·18기림재단 이사장은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으로, 5·18을 반론의 여지가 없는 국가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며 "5·18을 폄훼하는 것은 이념을 두고 여야 극단 대립을 이어 온 정치 지형의 문제를 풀고, 민주-인권-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헌법뿐 아니라 정치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탄핵 넘어 공화국 열지 2024.12.19

"尹 파면하고 5·18 헌법 전문 담아야" 5·18 공법단체 등 25개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시민단체가 참여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는 19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개헌을 통해 6공화국 헌법의 모순을 바로잡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근로자 승소

"고정성, 합당 기준 안돼" 판례 변경 현대차 등 상대 승소...산업계 영향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 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이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

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한화생명보험의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찾은 한국노총 대구 조합원 46명 집단 식중독 증세

달빛동맹 행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한국노총 대구 조합원들이 단체 식중독 증상을 보여 광주 자치구 보건소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19일 광주시 서구와 북구에 따르면 전날 광주를 찾은 한국노총 대구본부 조합원 50명 중 46명이 구토와 발열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18일 오전 제8회 영호남 달빛동맹 노사 한마음대회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행사를 마친 대구본부 조합원들은 점심으로 북구 용두동의 한 식당에서 육회비빔밥을, 저녁으로 서구 치평동의 식당에서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구토를 하는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당일 새벽과 이날 오후까지 유증상자가 계속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와 북구 보건소는 식당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식당의 식품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게 검사를 의뢰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양 지역본부는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올해는 광주본부가 대구를 찾아야 할 해이지만 광주시가 노조 예산을 삭감하면서 교통비와 식비가 없어 대구본부에서 광주를 찾아 사고가 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6월 용두동의 또 다른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등 위생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36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19곳의 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본부에서 찾은 북구 식당은 전수조사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다민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